

충남 여성

2022
Vol. 41

여성이 새로
여는 세상

· 충남 남성의 양성평등 의식
· 2021 젠더 이슈는?

2021 스페셜 이슈

A WOMAN

· 교육사업 리뷰
· 2021 여성 소모임 활동 현장
· 팬데믹 이후 돌봄을 돌아보다

함께 하고

NEWLY

· 연구사업 리뷰
· 일할 여성가족제도
· 지역활동가의 작은 연구

편우 하며

OPENED

이야기로

· 개원 22주년 기념세미나
· 홈커밍데이 스케치
· CWPDI cowork 북 스토리

· SNS 홍보기반
· 충남여성 뉴스룸
· 성평등 참여를 만드는 사람들

소통하다

WORLD



COVER STORY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교육기관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통권 제41호
발행일 2022.12.31
발행인 조양순
발행처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주소 32626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 1283(학봉리 191-5)
연락처 Tel. 042) 825-1823 Fax. 042) 825-2461
누리집 www.cwpdi.re.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cwpdi
편집·인쇄 (주)봄인터랙티브미디어 www.bom21.com

목차

기관 역사 하이라이트

걸어온 길을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1999년 설립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지난 2월 개원 23년 만에 충남여성가족연구원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후 연구원 사옥을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내로 이전하며 지역 여성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다. 오늘의 도전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설립 이래 시대에 발맞춰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해 온 그간의 성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평등 정책 확산의 중심으로서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23년의 기록을 되짚어 봤다.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개원기념 세미나_1999.9.8.

'21세기 여성정책의 비전'을 말하다

1999년 7월 6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여성전문 연구·교육기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 개원했다. 개원기념 세미나에서 지역 여성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농촌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워크숍_2000.9.22.

여성농업인, '노동의 가치'를 되찾다

농업과 가사라는 과도한 노동의 굴레 속에 놓여있는 충남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워크숍이 개최됐다.

여성농업인의 노동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고, 권익증진을 모색했다.

제1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과정_2001.4.18.-5.10



여성 인권을 지키는 '여성전문가'를 양성하다

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주는 전문상담원 양성이 실시됐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인권을 위한 여성전문가를 배출했다.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여성 리더'를 키우다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을 위한 여성지도자 육성 강화 캠프를 개최했다. 여성이 꿈을 펼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했다.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여대생 캠프_2003.6.27.-6.28.

다문화 사회 속 '다 같이 사는 세상'을 꿈꾸다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발맞춰 '제1회 충청남도 다민족·다문화 축제'를 열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이해와 화합의 장이 되었다.

제1회 충청남도 다민족·다문화 축제_2007.11.1



다가오는 '고령화사회'의 복지정책을 논의하다

충남 여성노인 복지 방향 모색을 위해 일본 구마모토현의 전문가를 초빙해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령화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나아가 여성노인의 자립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주여성이 '재능'을 펼치는 충남을 만든다

이주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키우고,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했다. 더불어 이주여성이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키워나가도록 지원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보육과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변화를 위해 정부정책을 분석하고 비전을 제시했다.

'성 주류화 정책 시스템' 정착에 앞장서다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도입에 따라 충남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정책교육을 진행하였다. 도내 공무원의 성인지 관점 향상과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 업무 역량을 강화시켰다.

'비교적 관점에서 본 한·일 노인복지정책' 국제 세미나_2008.11.27.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개원 10주년 기념
'2009 다문화 자원봉사 특별포럼'_2009.6.5.

충남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 워크숍_2010.8.17.



충남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시·군 순회교육_2010.11.2.



제1차 여성 일자리 포럼_2011.6.30.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CWDPI 포럼_2015.12.7.

언제나 '다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하다

충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여성인력 활용이 경제성장과 경제위기 극복을 이끌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했다.

지역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릴 방안을 논의하다

충남의 성평등 수준 향상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비전 설정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충남양성평등비전 2030'은 도민의 목소리가 담긴 종합적인 양성평등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제3회 충남풀뿌리여성대회_2017.3.9.

충남 풀뿌리 여성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나서다

풀뿌리소모임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인큐베이팅을 시작으로 풀뿌리자치학교, 풀뿌리 여성대회도 개최됐다.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답을 찾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성평등 충남을 위해 노력한 모두, 다함께 웃다

한 해 충남 성평등을 위해
달려온 활동가들을 위한
홈커밍데이가 개최됐다.
1년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소망하는 미래를
함께 나누며 의지를 다졌다.

2018 홈커밍데이_2018.11.23.



2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20년을 향해 출발하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주년을 맞아 '더 행복한'충남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양성평등정책 20년 성과와 시사점을
나누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20주년 기념행사 'Change & Challenge'_2019.10.16.





**팬데믹 속
여성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다**

개원 21주년 기념 세미나
'코로나19와 젠더'_2020.6.29.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성노동, 돌봄, 젠더폭력 등 위기상황 속 여성 문제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팬데믹동안 가중된 여성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다.

**역사를 통해
'미래 여성리더'를
발굴하다**

유관순 열사 정신을 계승하고 여성리더를 발굴하는 유관순연구소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세상을 변화시킨 여성과 변화시킬 여성의 만남이었다. 유관순연구소 공동학술대회_2021.10.18.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충남여성가족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_2022. 2. 15

다양한 소수자 포용하는 연구 진행

시대변화를 반영한 명칭변경 요구에 따라 이뤄졌으며 모든 연구원은
충남 여성 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성평등한 충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기관명칭 개정을 바탕으로 올해는 성평등, 청소년, 청년,
노인, 고려인 등 충남의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명칭변경 이후 연구원 사옥을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로 이전해
지역 여성과 활발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2022 젠더 이슈는?

미국의 '임신중단권' 폐지 판결과 이란의 하잡 반대시위, 여성가족부 개편안, 신당역 살인 사건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여성이 고군분투하는 한 해였다. 하지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그나마 위안받을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의 많은 여성이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 한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주요 이슈를 되짚어 본다.

박사방 피해자
손해배상 첫 승소

1

박사방 피해자 A씨가 조주빈 일당에게 제기한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재판부는 추행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전송받은 영상물의 수도 많은 점, 현재까지도 영상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는 점, A씨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사노동자,
근로자 인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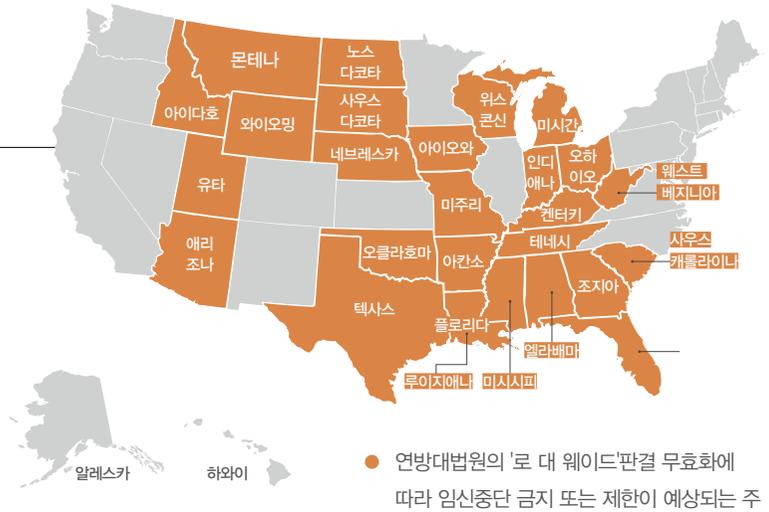
시민 사회가 10여년 넘게 제정을 요구해 온 '가사근로자법'도 시행됐다. 가사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법정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을 보장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도입하며,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021년 5월 21일 국회를 통과해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임신중단권'
폐지

3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중단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임신 중단 위법 여부가 각 주(州)로 결정권한이 넘어가게 되었다. 찬반여론이 거세게 맞서며 워싱턴 DC에서도 찬·반론자의 시위가 열렸다. 인디애나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임신중단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며, 캔자스주는 개헌 반대 58.8%로 부결되면서, 11월에 열린 미국 중간선거에 '임신중단권' 이슈가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신중단 금지 또는 제한이 예상되는 주



끊이지 않는 스토킱 흉악 범죄

4

스토킱 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신당역을 순찰하던 여성 직원이 전 직장 동료였던 스토킱범에게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전주환은 9년 형을 선고받았고 서울교통공사는 허술했던 직원 보호 조치로 비판받았다. 스토킱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주변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처벌이나 방지 대책 등이 시급하다.

이란에서 일어난 '히잡 반대 시위'

5

22살의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테헤란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의문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여성들은 히잡을 불태우고 머리를 자르며 여성 인권을 외쳤다. 그러나 정부의 무력 진압이 계속 되고 있다. 또 히잡을 쓰지 않고 스포츠클라 임िंग 경기에 출전한 선수 엘나즈 레카비의 집이 철거되고, 히잡 반대 시위 지지를 표명한 배우 타라네 알리두스티는 보안군에 체포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줄지 않는
젠더폭력,
페미사이드
(Femicide)

6

페미사이드(Femicide)는 여성(Female)과 살해(Homicide)를 합친 용어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 해 국내에도 이와 같은 페미사이드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7월 인하대 남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성폭행한 뒤 학교 건물에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9월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당했다. 10월에는 충남 서산에서 대낮에 5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당역과 서산 살해사건 피해자는 이전부터 스토킹과 가정폭력으로 사건의 위험성을 알렸음에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노처녀 · 몸매 ·
글래머 등이
사라진 언론사
헤드라인

7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팀에 따르면 일간지 기사 제목에 '노처녀'라는 단어는 2011년 16회, 2015년 13회가 등장했으나 2021년부터는 헤드라인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또 2015년 여성 헤드라인으로 1094회 올라왔던 '몸매'는 2021년 22회로 줄었다. 여성의 신체부위를 특정해 지칭한 신조어로 쓰였던 '베이글', '베이글녀'도 횡수가 점차 줄어 빵의 이름을 되찾았다. 위와 같이 노골적인 신체 부위나 외모를 강조한 표현들이 느리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젠더와 합쳐진 혐오와 자극적인 범죄 보도 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KBS
전국노래자랑 ·
아이들 누드 발매

8

방송계는 여성 방송인의 힘이 돋보이는 한 해였다. 지난 1988년부터 방영된 KBS1TV '전국노래자랑'의 MC 송해가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후, 후임으로 방송인 김신영이 발탁됐다. 20년차의 베테랑 희극인인 그는 TV, 라디오, 영화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무대경험이 풍부한 것이 강점으로 뽑힌다. 또 '걸그룹'이라고 일컬어지는 여자 가수들의 인기가 심상치 않았다. 많은 신인 걸그룹이 획기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그중 (여자)아이들은 'Nxde(누드)'라는 곡을 통해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성 상품화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했다. 곡을 작사, 작곡한 전소연은 인터넷에 '누드'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부정적인 것을 없애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

9

교육부에서 '2022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예고(안)'를 발표했다. 사회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관련 서술이 배제됐으며, 도덕 교육과정에서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삭제됐다. '성평등'은 '성에 대한 편견', '성평등의 의미'는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수정됐다.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1·2학년부부터 시작해 2025년 중·고교 신입생에게 도입된다. 전 학년 적용은 초등학교 2026년, 중·고교 2027년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

10

교육부에서 '2022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예고(안)를 발표했다. 사회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관련 서술이 배제됐으며, 도덕 교육과정에서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삭제됐다.

'성평등'은 '성에 대한 편견', '성평등의 의미'는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수정됐다.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1·2학년년부터 시작해 2025년 중·고교 신입생에게 도입된다. 전 학년 적용은 초등학교 2026년, 중·고교 2027년이다.

2022 교육과정 수정내용			
역사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명시	도덕·보건	'성평등' 용어 삭제
사회	'기업의 자유' 및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명시 '성소수자'용어 삭제	음악	국악 관련 학습 내용 별도 제시
		특수교육	'사회적응' 과목 신설 등

일회용 생리대
화학물질의 비밀

11

일회용 생리대의 화학물질이 생리통, 생리혈색 변화, 외음부 가려움증 등 증상 위험을 높인다는 환경부의 연구 결과가 지난 10월 공개됐다. 2017년 여성환경연대의 최초 문제제기 후 4년만이다.

여성계는 정부에 “노출·독성평가 등을 통해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생리용품 관리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직개편안 발표

12

정부가 지난 10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새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행 18부 4처, 18청 6개 위원회에서 18부, 3처, 19청, 6개 위원회로 변경된다.

함께하고

- 00 **전략** 민선 8기 충청남도 양성평등정책 방향과 과제
- 민선 8기 중점 아젠다 발굴을 중심으로
- 00 **기초** 충청남도 공무원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 00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서 매뉴얼 개발
- 00 충남 청소년 성평등 및 성태도 인식 현황 분석 연구
- 00 충남 지역 여성기업 실태조사
- 00 충남 청년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 00 충남의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방안
- 00 충남 여성의 건강실태와 정책 지원방안

Together

PART 1

Together

미래 젠더이슈와 대응

변하는 시대, 민선 8기의 양성평등 정책 방향은?

팬데믹 이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비대면 중심으로 사회 구조가 재편되면서 디지털 기술 활용 여부에 따른 정보 격차는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가져왔다. 산업현장에 자동화와 인공지능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여성의 일자리가 줄거나 특정 기술 직업군에서는 성별 분리가 심해지기도 한다.

이에 충남여성가족연구원 김영주 수석연구원은 민선 8기 동안의 충청남도 양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정책 추진의 객관적 근거를 제안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연구를 진행했다.

미래 환경과 젠더 이슈

| 미래전망과 대응방향 |

분야	미래 주요 젠더이슈	대응 방향
정치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평등주의, 배타적 애국주의, 타인에 대한 관용성 약화, 성평등 의제의 약화 혹은 주변화 다양한 정치세력 등장 및 성장과 함께 젠더 이슈를 포함한 다양성, 포용성의 가치 확산이 가능한 여건 성숙 다양한 정체성 중심의 결속과 시민정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성, 포용성의 가치 확산과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 활동 지원 강화 여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 세력화 할 수 있도록 참여 역량 강화
경제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화와 여성 일자리 감소 기술기반의 새로운 직업군에서의 성별 분리 심화 플랫폼 경제 확대와 함께 돌봄 등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M 분야 여성 진출 독려와 지원 확대 고기술 기반 일자리의 여성 고용 확대 지원 지역 내 농축산업, 해양산업, 문화산업 등의 스마트 전환, 융합 신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 여성의 고용과 참여가 주변화되지 않도록 여성 일자리, 고용정책 필요
사회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적으로 다양한 가족결합과 파트너십 관계의 제도적 인정 지역소멸 위험 증대와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 공간 축소, 정주환경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의 공공화 확대, 사회적 안전망 확대 여성, 가족친화적 정주 환경 조성
기술적 환경 (생태적 환경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기반 젠더폭력 증가 젠더 편향 알고리즘에 기반한 성역할 고정 관념 재생산, 성차별적 관행, 규범 지속 여성의 몸과 출산의 도구화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자연적 재난 피해 증가 남성중심적인 탄소중립적 산업구조 재편과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기반 젠더폭력 방지와 지원 강화 성차별적 기술개발 및 활용 제한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제재 및 규범 설정 재난취약 계층 및 집단에 대한 대비책, 지원 정책 강화 탄소중립적 산업구조 재편과 전환 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주류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정책 추진 필요

12대 아젠다 및 세부 아젠다

전문가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12개의 양성평등정책 아젠다를 선정했으며 12개의 아젠다 아래 31개 세부 아젠다와 10개의 중점 세부 아젠다를 선정했다. 10대 중점 세부 아젠다는 ‘여성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 ‘성별 임금격차 개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문화 확산’, ‘성평등 관점의 정치/정책 의제 확대’, ‘지역 커뮤니티 기반 돌봄시스템 구축’, ‘무급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돌봄경제 활성화’,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 ‘성별/세대별 성평등 의식 강화’, ‘청년 여성의 지역 정착 확대’이다.

- | | |
|--------------------------|-----------------------------|
| ①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⑦ 다양하고 자유로운 가족구성과 삶의 방식의 보장 |
| ②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 ⑧ 누구나 돌보고 돌봄받는 시스템 강화 |
| ③ 동등한 경제적 자원분배와 삶의 질 제고 | ⑨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 ④ 기술변화 사회에서의 격차 개선 | ⑩ 성평등 의식 및 생활 속 실천역량 강화 |
| ⑤ 실질적인 여성 대표성 확보와 영향력 확대 | ⑪ 환경·재난위기에 대한 평등하고 정의로운 전환 |
| ⑥ 성평등한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 | ⑫ 다양한 여성들이 살기좋은 정주환경 조성 |

아젠다 별 정책 내용

향후 민선 8기 충청남도의 12대 아젠다는 다음의 정책 내용을 포함하는 단위 정책 혹은 사업으로서 구체화될 수 있다. 이는 2023년에 수립 예정인 『제3차 충청남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4~2028)』의 세부 정책과제로 연결해 활용 가능하다.

| 민선8기 충청남도 양성평등정책 아젠다별 정책 내용 |

아젠다	정책 내용
①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및 시군 성평등정책 담당관 배치 • 실국장 성과목표 연계 성평등목표제 추진 •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강화 • 성인지통계 생산 강화(행정통계 성별분리 통계 의무화) • 시군 젠더거버넌스 확대
②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평등상담실 확대 • 여성 비정형노동자(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 여성 디지털인재 양성 • 여성취업지원 기관의 디지털융합/신산업 분야 프로그램 강화
③ 동등한 경제적 자원 분배와 삶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공시제 실시(조례 개정 포함) • 중소기업 유연근무제 인프라 지원 확대(원격·재택근무 인프라구축, 인사노무비) • 경력단절여성의 경력인정과 제도적 지원 설계

④ 기술변화 사회에서의 격차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이공계 여성인력활용 촉진사업 확대 • 여성 중고령층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 • 도내 AI 기반 신산업 종사자 성평등 인식 강화
⑤ 실질적인 여성 대표성 확보와 영향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여성 정치리더 육성 • 공공기관 기관장 여성비율 목표제 • 지방의회 의원 성평등 의정활동 역량강화 • 여성참여 취약분야 위원회 30% 목표제
⑥ 성평등한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건강지표 생산·관리 •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확대 • 여성장애인지원센터 전문병원 지정
⑦ 다양하고 자유로운 가족구성과 삶의 방식의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수용성 증진 사업 확대 •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및 안전 지원(ot 기반 돌봄플러그 보급 등)
⑧ 누구나 돌보고 돌봄받는 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단위 돌봄지원 확대 • 부모육아휴직, 남성육아휴직 확대 • 긴급돌봄체계 강화 • 돌봄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⑨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성폭력피해지원센터 기능 강화 • 도민 젠더폭력 예방교육 강화 • 범죄취약지역 발굴 및 방범시설 확대 • 시군 긴급피난처 확대 및 도비 지원 • 아동·청소년 젠더폭력 피해 지원 강화
⑩ 성평등 의식 및 생활 속 실천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 양성평등교육 확대 • 문화예술활동 연계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 생활 속 성평등정책 모니터링 • 양성평등기금 조성 확대
⑪ 환경·재난위기에 대한 평등하고 정의로운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거버넌스에서의 여성의 참여 확대 • SDGs 이행점검 강화 • 여성주도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창립 지원 • 탄소중립 실천 여성 마을활동가 양성
⑫ 다양한 여성들이 살기좋은 정주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여성 일자리 상담, 취업연계 강화 • 여성 농어업인 특수 건강검진 • 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 운영 • 청년여성 리빙랩(living lab) 지원 사업

공직사회의 양성평등

성별과 세대에 따라 다른 시각, 다른 생각 충청남도 공무원의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과거 수직적이면서 위계적 조직문화를 강조했던 공직사회가 MZ 세대를 맞이하며 세대교체를 이뤄가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젊은 공무원의 퇴직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연공서열과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 젊은 공무원의 적응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충청남도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353명이 퇴직하고 최근 3년간 691명이 새롭게 입직하며 공무원 세대교체 과정 중에 있기도 하다.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오민아 연구원은 성별 및 세대 간 조직문화 실태를 다면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충청남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평적인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도출해냈다.

성별에 따른
개인의 성평등
의식은?

| 개인 성평등 의식 조사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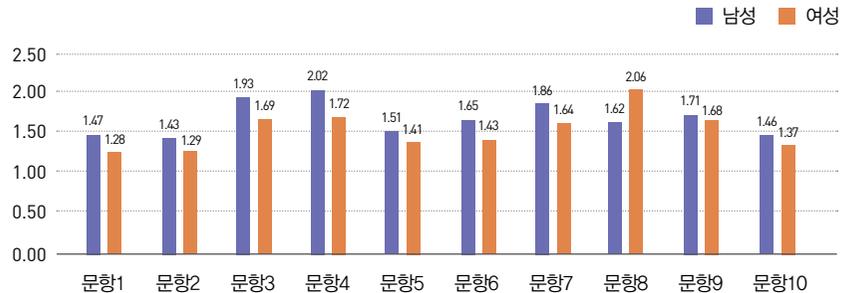
n=314, 단위: 4점

문항		표준	표준 편차
공적 영역 성평등	문항1.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1.39	0.59
	문항2. 자격과 역량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 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성직원을 시켜야 한다	1.37	0.54
여성권리 인식	문항3.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의무를 다하지는 않으면서 사실상 특별대우를 원한다	1.83	0.74
	문항4.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은 거의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의 성평등 정책이나 제도는 필요 없다	1.89	0.73
성역할 고정관념	문항5.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학벌 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이 좋다	1.47	0.55
	문항6. 여성은 되도록 어리고 예쁠 때 결혼하는 것이 좋다	1.55	0.63
	문항7. 여성은 육아와 가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	1.76	0.72
외모평가· 성희롱 인식	문항8. 나는 직원들의 외모나 옷차림새에 관해 얘기(칭찬 등을 비롯한 평가 포함)를 할 때가 있다	1.81	0.75
	문항9. 사소한 성적 언동까지 성희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직문화를 경직되게 만든다	1.70	0.77
	문항10. 성희롱 피해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성의 의사소통 기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1.42	0.54

응답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

| 성별에 따른 개인 성평등 의식 조사결과 |

단위: 4점 척도



성희롱 인식의 경우 남녀에 따른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적 영역 성평등, 여성권리 인식 및 가정 내 성 역할 고정관념에 관하여 여전히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성평등 인식 수준이 낮았다.

MZ 세대 특성 인식은?

| MZ세대 특성 인식 조사결과 |

문항	표준	표준 편차
자기계발에 적극적이다	2.87	0.60
조직보다 개인을 우선시 한다	2.90	0.75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2.89	0.67
배려와 소통의 조직문화를 지향한다	2.97	0.70
공정한 평가와 피드백을 중시 여긴다	3.18	0.57
업무 성과에 상응하는 보수와 보상을 중시 여긴다	3.17	0.63
승진보다 일·생활균형(워라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3.13	0.66
공직사회의 보고, 회의, 의전, 회식 등 암묵적 관행에 비판적이다	2.99	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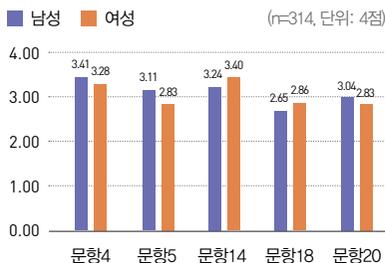
응답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

세대 구분에 따라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나타난 문항의 조사결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배려와 소통의 조직문화 지향’과 ‘공정한 평가와 피드백 중시’에 대해 MZ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보다 높은 응답 수준을 나타냈다.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어떤 정책이 중요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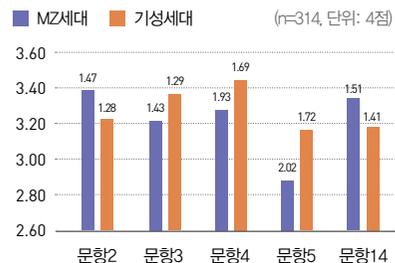
상사의 태도에 해당하는 문항인 ‘상사의 일·생활 균형 의식 향상’과 ‘업무시간 외 부하직원 사생활 존중’ 두 문항에서 가장 높은 평균 수준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인식과 태도가 조직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정책 방안 중요도



- 문항4. 직급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 제시하는 회의문화
- 문항5. 선·후배 공무원 간 교류문화
- 문항14. 보다 적극적 성희롱 예방 및 사후 대처
- 문항18. 부서 배치 성별 균형 확대
- 문항20. 조직문화 개선과제 공모 및 캠페인 실시

세대 구분에 따른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정책 방안 중요도



- 문항2. 불필요한 회식 자제 및 자율적 회식 참여
- 문항3. 업무집중도 향상
- 문항4. 직급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회의문화
- 문항5. 선·후배 공무원 간 교류문화
- 문항14. 보다 적극적 성희롱 예방 및 사후 대처

일·생활 균형의 정도와 조직에 대한 몰입도는?

평균 근무시간은 전체 평균 46.46시간으로 성별과 세대 구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사·육아 시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높았으며 조직 몰입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기성세대가 MZ세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은?

정책 방향	세부 내용
집중관리 직급 선정· 및 직급 간 교류의장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관리자급 이상을 중심으로 일·생활균형 지향 조직문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등 위한 집중관리 워크숍 개최 · 상하 직급 간 조직문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조직문화 개선 정책 반영
(중간)관리자 인식 개선 및 과제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녁회식문화 바꾸기, 의전 간소화, 하위직급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등 제도적 과제 부여 통한 장기적 인식 개선 · 신규 관리자 특별교육과정에 일·생활균형 문화 및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 · 고위공무원 직무성과계약 시 성평등·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위한 과제 필수 부여
실효성 있는 성인지 교육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소규모 토론회 기획 및 부서별 과제 도출과 실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은?

정책 방향	세부 내용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관리자급 이상을 중심으로 일·생활균형 지향 조직문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등 위한 집중관리 워크숍 개최 · 상하 직급 간 조직문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조직문화 개선 정책 반영
신규 공무원 직무개발 지원 및 주요 직무수당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공무원 역량진단 통한 직무개발 지원 및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 · 의견 수렴 통한 부서별 주요직무 및 고난도 직무 수행 직원 선정 후 수당 제공
양성평등 위원회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거 운영되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 조직문화 제도개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젠더폭력에 관한 제도개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역할 부여
의사결정 기구 성별균형 참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인사, 복무 및 복지 등 관련된 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구성 시 성별 균형참여 보장
5급 이상 여성관리자 확대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서에 소속된 성별 통계 작성 및 공개 · 주요 부서에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 배치 성별 균형 확대 · 최근 5개년 간 육아휴직 활용자 복귀 후 배치된 부서를 통계 자료로 산출하여 경력관리 적절성 검토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지침

우리 지역 현실에 딱 맞는 성인지 예산제 매뉴얼

충청남도의 성인지 지침서는 지역의 성평등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성평등 목표에 기반한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 충남 성평등 목표에 따라 도 예·결산 총괄, 실·국·과 총괄, 사업담당자가 일관되게 제도를 운영하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성평등 목표, 실·국 별 성평등 실행목표, 사업명 부제, 성과목표 작성 방향성과 실제 개선사례를 제시하여 성인지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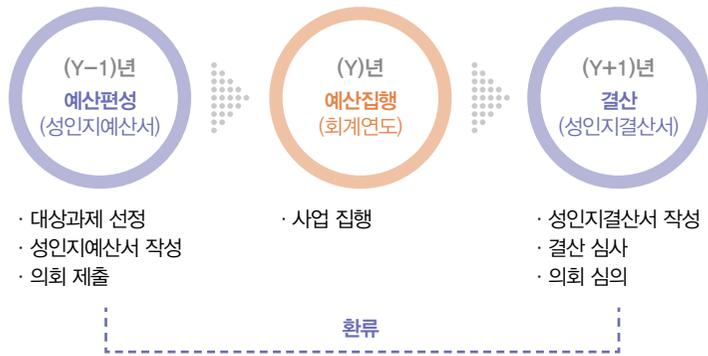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사업 집행 이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환류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의 적용을 받는 성인지예산서는 사업(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다. 또 「지방회계법」 제18조의 적용을 받는 성인지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예산)의 수혜를 받았는지 또한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다.

성인지 예산제 운영 주기

| 성인지 예산제 운영 주기 |

성인지관점+사업예산 ▶ 성인지예산서 ▶ 집행 ▶ 평가 ▶ 성인지결산서 ▶ 환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를 통한 정책개선 사례

|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에 여성농업인 수혜 확대 |

(Y-1)년 성별영향평가	(Y-1)년 성인지예산서	(Y)년 사업집행	(Y+1)년 성인지결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여성농업인은 출산·양육 등으로 농업경영 참여가 어렵고, 교육참여에 소극적인 인식을 가짐 농촌의 고령부모는 청년여성에게 경작 중심의 노동 승계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청년여성농업인 대상 교육수요 조사 실시, 관련 프로그램 개발, 홍보 확대 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 청년농업인 여성 : 남성 = 45.4% : 54.6%이나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성별 수혜비율은 여성:남성 = 6.7%:93.3%로 여성 수혜비율이 현저히 낮음 성과목표를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여성 수혜자 비율을 전년도 6.7%보다 상향한 9.0%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사업 심사평가에 여성농업인 가점 운영 4-H 여성회원 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육성사업 지원을 받은 여성 수혜자 비율 11.4%로 성과목표 초과 달성 향후 여성농업인 할당제 도입 등 여성 수혜자 비율 점진적 확대 노력 지속 (성별영향평가, 예산 반영)

|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사업에 남성 부모 참여 확대 |

(Y-1)년 성별영향평가	(Y-1)년 성인지예산서	(Y)년 사업진행	(Y+1)년 성인지결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비율은 79.0%로 남성(21.0%)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북한이탈주민 남성의 경우 자녀 교육문제는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경제활동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매우 높음 • 북한이탈주민 남성의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주말교육프로그램 등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시 성과목표를 '남성 북한이탈주민 교육 참여율' 7%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체험,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구성원들의 소통·공감을 이끌어냄 • 북한이탈 남성 부모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주말 프로그램 운영, 일정 조율 등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성인지결산서 작성 결과 48.3%를 달성 • 향후 아빠-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남성 성인 지감수성 함양 교육 등 실시 예정임

충청남도의
성인지 예산제
운영 체계도



충청남도의 성평등 목표에 따른 성인 지 예산제 운영

성평등 목표	성평등 목표	
	분야	지표
1. 남녀 동등참여 및 역량 강화 -행정·민간·정치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분야별 여성리더 발굴·한 확대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초중고 교장·교감 비율(신규)
2. 고용의 성별 격차 해소 -성별 임금격차 개선 정책 추진 -취약계층 여성 탈빈곤·빈곤예방 정책 강화 -노동시장 내 성차별 개선 -성별 고용지표 개선	고용	고용률(신규) 상용근로자 비율 노동시장 직종 분리(신규) 경력단절 여성 비율(신규)
	소득*	임금 격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공적연금 수급률(신규)*
	교육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3. 일과 생활의 균형 -가족돌봄의 공공성 강화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문화 확산	돌봄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 사용
4. 여성의 복지·인권 증진 -폭력·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여성 건강증진 정책 강화 -여성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신규)* 기대수명(신규) 정신건강(스트레스 비인지율)
5. 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생활 속 성평등 실천 확산 -공무원 성인지정책 수립능력 향상 -성주류화 제도 추진 성과 확대	전체	성역할 고정관념(신규)* 노동시장 성평등태도(신규)*

성평등 목표와 연계한 대상사업 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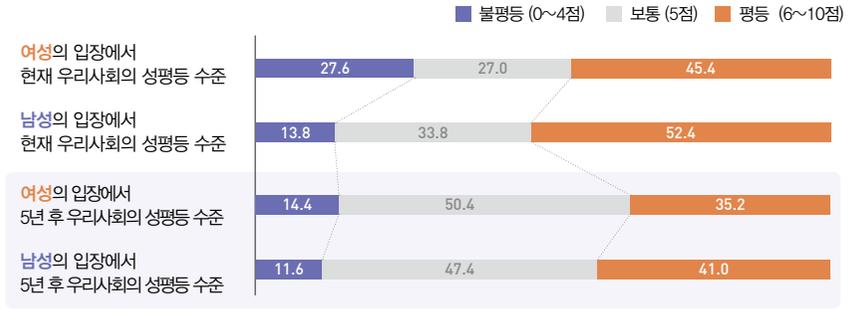


충청남도 청소년의 성평등

지역 청소년이 생각하는 성평등 의식과 성태도에 대하여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안세아 연구원은 최근 도내 청소년의 성평등 및 성 태도 인식 현황 실태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인식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연구는 정책대상에 맞도록 성평등 교육을 개선하고 관련 정책 사업을 다각화하는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청소년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성별에 따른 성평등에 대한 개념 및 관점이 상이하다. 향후 성평등 수준 개선을 위해서는 성별에 국한하여 나타난 성차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영역 안에서 나타나는 ‘차별’에 대한 인식 현황과 개선과제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성별에 따른 성평등에 대한 온도 차

성평등에 대한 전반적 인식현황에서 ‘여성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충분하다’라는 질문에 남자 청소년은 절반 이상인 74.6%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여자 청소년은 ‘여성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50.4%)’고 인식하고 있다. 남자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성 통념을 개선하기 위한 성별 맞춤형 성 인권 및 성평등 교육안이 마련되어 단계적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성 역할 고정관념

‘반장이나 학생회 간부 등 리더의 역할은 여자보다 남자가 적합하다’라는 질문에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리더의 역할에 남자가 적합하다’라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좀 더 책임감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받아야 한다’라는 질문에도 여자보다 남자가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며 ‘남성이 여성보다 책임감 있는 일을 하여야 한다’라 성역할 고정관념이 나타났다.

부모가 강요하는 남녀차별

‘집안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와 ‘가족의 생계는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내 청소년 대상 FGI의 관련 사례에서 한 남학생이 아버지가 “남자는 여자보다 공부를 더 잘 해야 한다”라고 부담을 주는 말을 자주 해 오히려 학업에 전념하기 싫었던 사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점차 부모님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게 되고 귀가 시간도 늦어지며 ‘집에서 독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고 한다.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고용에 대한 차별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능력이 같을 때 여자보다 남자를 채용한다’에 대해 남학생의 56.3%가 동의한 데 반해 여학생은 30.3% 수준으로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도내 청소년 대상 FGI의 관련 사례에서 남학생은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여성이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사회에서 역량을 펼치고 싶고 지속적인 경력을 인정받아 보수에 차별 없이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

일률적이고 반복적인 학교 성교육

‘성관계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 ‘임신이 가능한 시기를 알고 있다’에 대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동의 정도가 더 크고 성별에 따른 동의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 도내 청소년 대상 FGI의 관련 사례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 내용이나 범위가 너무 일률적이고 1년에 몇 차례씩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실시해 흥미가 떨어지고 성지식 수준도 모호하게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아직도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는 이성교제

‘스킨십은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의 경우 성별에 따른 동의 정도(남자 33.2%, 여자 15.2%)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스킨십을 주도해야 한다’와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나의 성행동을 자제할 수 없다’는 응답 비율이 남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성태도에 대한 남녀 비율 차이

‘성폭력을 당했다면 24시간 이내에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동의 정도(남자 78.1%, 여자 89.3%)에 차이를 보였다. ‘남자는 교제 관계에 있어 항상 리드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의사충돌 시 무조건 여자는 남자 의견에 따라야 한다’에서도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여전히 접하기 쉬운 청불 성컨텐츠

‘나는 청소년 관람 불가 성적 콘텐츠를 직접 찾아보고 있다’는 비율이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나는 청소년 관람 불가 성적 콘텐츠를 차단하는 모바일 앱 또는 컴퓨터 사이트 차단 방법을 알고 있다’에서도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도내 청소년 대상 FGI 사례에서 남학생은 성관계 관련된 청소년 관람불가 성적 콘텐츠를 직접 찾아보거나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 파악을 통한 개선방안

학교 성평등교육의 독립된 법안 제정 필요

[중장기적 과제] 학교 성평등 교육의 강력한 추진의 근거로서 작용하는 구체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 독립된 법안 제정, 교육안에서 성평등 교육을 담아내고 개념적 정의에서 지원 여건을 마련, 교원 의식을 제고한다, 현황 및 실태조사 등을 담아내도록 한다.

[중장기적 지속과제] 시도 교육청 지침으로 의무연수 과정만 지정, 성평등의식 제고 교육 실시 시도 교육연수원 미흡, 교원 및 강사진 대상 원격 연수기관 기능 강화, 중앙단위의 기능을 지역 단위로 확대, 현장 교사진 강사들 성평등의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보수교육 지원필요

대상 맞춤형 성평등 교육 및 성교육 필요

[중장기적 지속과제] 학년별 성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대상 맞춤형 교육사업 체계화가 필요. 학교 기술가정 시간, 창의체험시간에 자율적 성교육 실시, 권고사항에 해당되는 성교육이 필수과목안에서 작동되지 않아 교육횟수도 제한적이고 유사한 내용의 교육과정이 학년과 무관하게 실시되고 있다.

[중장기적 지속과제] 교육 대상에 대해서도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또는 남녀 청소년이 함께, 장애인 및 비장애인 청소년이 함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다각도 확대 필요. 교육 주최·실시하는 학교교사진 정기적인 성평등 교육 실시 필요. 현재 도내 청소년 성문화센터 2곳에서 15개 시군을 분담, 찾아가는 성교육을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 대상으로도 실시, 인력 및 예산 지원이 부족 추가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 전국 57개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우수사업들을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기능적 지원 역시 필요

성평등 및 성교육 관리 체계 정교화

[중장기적 지속과제] 현재 성교육 수업 실시 주체가 사기업이나 프리랜서 강사가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교육청 등에서 컨트롤타워로서 주축이 되어 교육 과정에 대한 현황조사부터 강사진 인력 관리 등의 정교한 관리가 필요. 향후 양성평등문화확산사업에 대한 지원 기간 및 예산이 보다 확대되어 지속사업으로써 지역내에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성평등문화교육사업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풍부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접근성 확대

[중장기적 과제] 2000년대 초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발한 교육자료, 이 후 여성가족부의 성인권 관련 자료에 대한 유치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개발한 자료 국한, 교육현장에서 교사진이나 성평등 교육 강사진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범위 제한적, 다양한 교수방법을 동원한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가 개발,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보급, 교육의 접근성 확대 필요

충청남도 여성 기업

지역 여성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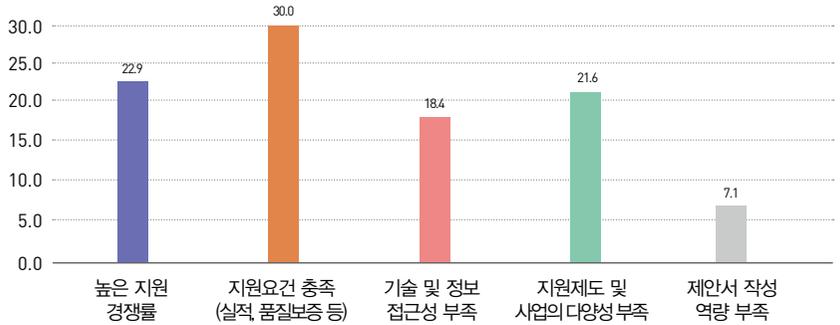
‘중소기업기본통계’와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 수는 도내 전체 기업의 약 40% 가량으로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 기업의 생존율은 설립 3년을 기점으로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영 환경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안수영 선임연구원이 지역의 여성 기업인을 대상으로 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해 지역의 특질에 맞는 충청남도의 추진 과제와 대책을 제언했다.

a women's enterpr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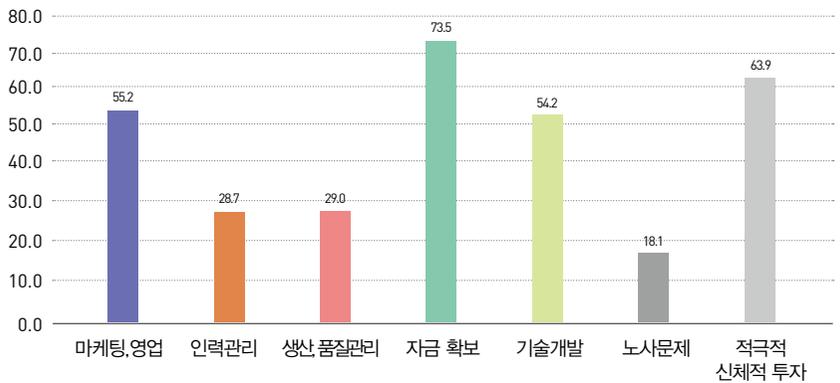
기업경영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가장 많은 여성 경영인이 기업지원제도 활용의 가장 큰 장벽은 지원요건 충족(30.0%)이라고 답했고, 기업의 취약점으로는 자금확보(73.5%), 적극적·선제적 투자(63.9%), 마케팅·영업(55.2%), 기술개발(54.2%) 부문이라고 진단했다.

| 기업지원제도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



| 여성기업의 취약점 |



변화는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은?

58.1%의 여성기업인이 디지털·에너지 경제 전환, ESG 인증과 같은 기업의 외부 경제 환경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 지속성장 요인으로는 1순위 기준 ‘여성기업 지원정책 개발’, 2순위 기준 ‘공공구매 확대(22.9%)’가 가장 높았으며 1+2순위 합계결과 ‘국내외 판로 확대(19.0%)’, ‘공공구매 확대(18.1%)’를 성장요인으로 지목했다.

| 여성기업 지속성장 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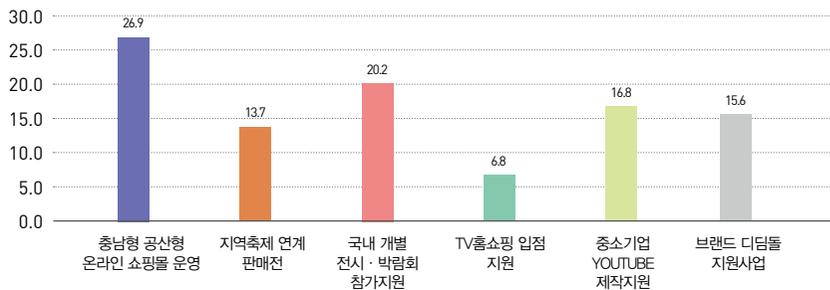
단위 : 업체 수, %	1순위	2순위	1+2순위	
			빈도	비율
국내외 판로 확대	23.9	14.2	118	19.0
여성기업 지원정책 개발	24.2	7.7	99	16.0
CEO 역량강화 사업 확대	4.5	8.1	39	6.3
여성경제인 간 교류확대 등 네트워킹 지원	13.2	7.4	64	10.3
기업경영 자문, 컨설팅 강화	2.6	4.5	22	3.5
맞춤형 경영정보의 빠른 제공	3.5	5.2	27	4.4
원활한 자금 조달	12.9	18.7	98	15.8
여성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1.3	8.4	30	4.8
공공구매 확대	13.2	22.9	112	18.1
우수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등 고용지원	0.6	2.9	11	1.8
전체	100.0	100.0	620	100.0

변화는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은?

중소기업 판로지원 시책 중 '충남형 공산물 온라인 쇼핑몰(26.9%)'을 여성기업 성장의 유효한 대책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 성장에 도움을 준 충청남도의 시책으로 혁신형 자금(21.0%), 소상공인지금(18.4%) 등을 꼽았다. 또 직무교육을 통해 기업 경영 및 성장에 필요한 정보축적, CEO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자원 확장 효과를 높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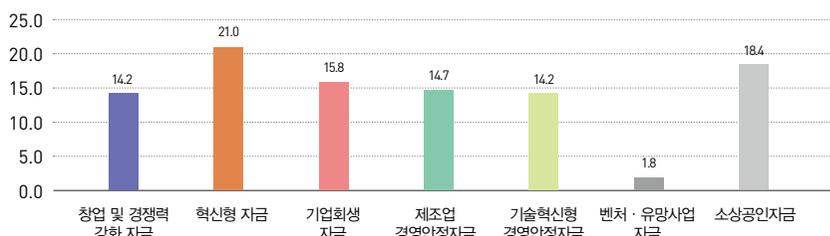
| 여성 기업 성장에 유용한 중소기업 판로 시책 |

기준 : 반응퍼센트(복수응답), N=62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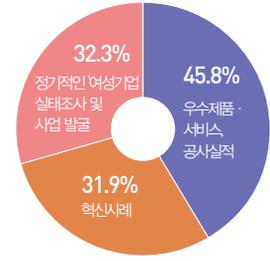
| 여성 기업 성장을 위한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자금·금융 시책 |

기준 : 반응퍼센트(복수응답), N=620, 단위 : %



여성 기업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 내용은?

여성 기업인은 기업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내용으로 우수제품·서비스, 공사실적(45.8%), 혁신사례(31.9%)를 꼽았다. 또 지역의 여성 기업 확대를 위해 정기적인 여성기업 실태조사 및 사업 발굴(32.3%)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기업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제언

첫째, 여성경제인협회 지역지회 선진화

회원사 수 확대를 통한 대표성을 강화하고 실무진 충원 및 고용 안정성을 강화한다. 또 여성기업 대상 중소기업 정책사업 컨설팅을 추진한다.

둘째, 충남형 공산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규시장 및 판로 확장

쇼핑몰 입점 심사 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여성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여성기업 전용관(특별관) 메뉴를 설치한다. 쇼핑몰 오픈 시 여성기업 제품을 MD추천 또는 핫딜 상품으로 프로모션한다.

셋째, 정기적인 여성기업 실태조사 실시와 조례 개정

충청남도의 관련 조례에 여성기업 실태조사 실시주기를 명기한다.

넷째, 여성기업-여성일자리기관 간 연계사업 발굴

민선8기 충청남도 일자리종합 계획에 추진과제로 포함한다.

다섯째, 사업주 일·생활균형 제도 마련

여성기업인 출산휴가, 출산수당 지원 등 충남형 여성 기업인 생애주기 복지제도를 발굴한다.

여섯째, 여성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여성기업 지식재산권 보유가 저조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여성이 바라 본 충청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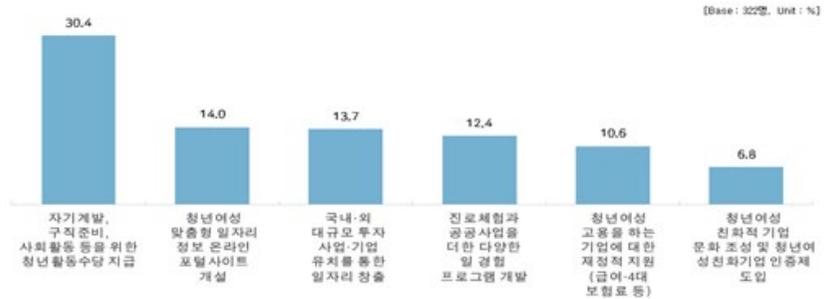
충남 청년여성의 생활실태와 지원 방안

1인가구가 점점 증가하는 현실에서 지역의 여성들은 현 정책에서 얼마나 보호받고 있으며 이들의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일까?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이경하 연구원은 일자리, 주거·안전, 교육, 복지·문화·건강, 참여·네트워크 영역 전반에 걸쳐 청년 여성의 생활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욕구 조사를 통해 정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했다.

충남의 청년여성으로서 직장에 대한 견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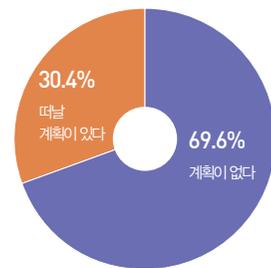
현 직장을 6개월 이내로 그만둘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41.4%) 이상이 '있다'로 응답했다.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갖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낮은 임금'이 27.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이어 '고용 불안정 또는 계약 종료' 및 '빈번한 야근 또는 휴일 근무'(각 13.0%), '미래 전망과 비전이 없음'(11.7%), '직장 내 인간관계'(10.4%), '열악한 근무 작업 환경'(6.5%) 등의 순이었다.

고용 및 일자리 관련 청년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충청남도의 정책은?



충청남도의 주거 환경에 대한 견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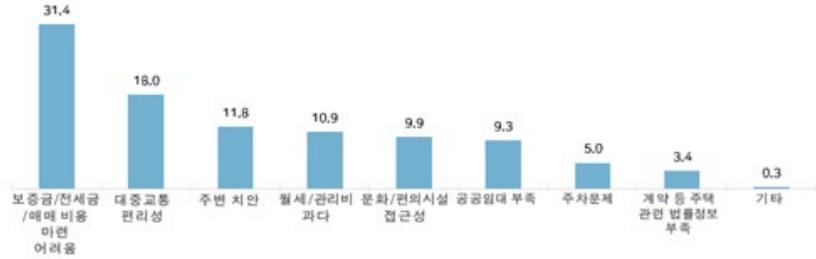
5년 이내 충남을 떠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계획이 없다'는 69.6%, '떠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30.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30세 이후는 대부분 충남을 떠날 '계획이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나, 20대는 상대적으로 이탈 계획이 높았다.



| 5년 이내 충남을 떠날 계획 여부 |

주거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5년 이내 충남을 떠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계획이 없다’는 69.6%, ‘떠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30.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30세 이후는 대부분 충남을 떠날 ‘계획이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나, 20대는 상대적으로 이탈 계획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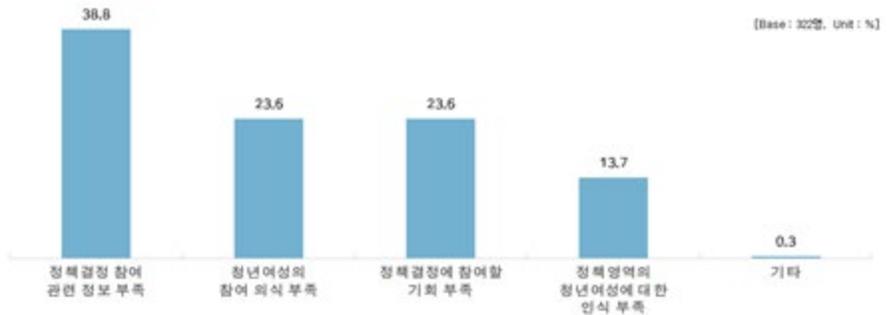
청년문화 활성화와 청년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1순위 기준)으로, ‘청년문화공간 마련’(27.6%)이 가장 높았다. 청년여성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32.3%)가 가장 높았고, ‘진료 등 의료비용 지원’(23.0%), ‘정기적인 검진 프로그램’(19.9%), ‘생활체육 등 활성화 지원’(12.7%), ‘건강 관련 캠페인 등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청년여성이 정책에 참여하는 데 어려운 점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참여 시 선호하는 참여 방법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SNS'(58.4%)라고 응답했으며, 이어 '이메일'(9.6%), '온라인 청원'(8.7%), '공청회/포럼 등 행사' 및 '청년네트워크 등 거버넌스 활동'(8.4%), '청년정책위원회 등 공식 위원회'(6.2%) 등의 순이었다. 청년여성이 정책결정 과정 참여 시 가장 큰 문제로 '정책결정 참여 관련 정보 부족'(38.8%)이 가장 많았다.



청년 여성을 위해 충청남도에 필요한 정책은?

청년여성 대상 설문조사 분석, 귀농·청년네트워크 활동가·1인 비혼가구·대학생 등 청년여성 심층면접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하여 아래 6개 분야 17개 과제를 도출했다.

| 분야별 정책 제언 요약 |

정책 방향	세부 내용
추진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참여자 성별분리 통계 생산 내고장 지킴이 청년여성 토탈 서비스 청년여성 인재 DB 구축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여성 일자리 협력망 구축 청년여성 공공기관 인턴직무경험 확대 여성사회적경제 기업인 양성 지원 창·농업 청년여성 판로 지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팜 교육 시스템 구축 청년 금융아카데미운영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지원 정책 확대 주거 상담서비스 지원 교통편의 지원
문화·복지·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청년 소통 공간 확대
참여·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39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 청년여성 소모임 활동 지원 강화 청년네트워크 활동지원 강화





공유하며

- 00 충남여성인물사
- 00 찾아가는 충남 여성 풀뿌리자치학교
- 00 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사업 Start-Up
- 00 충남 성평등 도시 만들기 Gender-Up
- 00 교육 사업 현장 스케치1 (대상별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 00 교육사업 현장 스케치2

Share

PART 2

Share



당진
백석올미마을

홍성
이주민센터

이주여성
통번역활동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성공동체를 만나다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은 2017년부터 역사의 발전을 이끈 지역의 여성리더를 매년 발굴해 왔으며
이들에 대한 자료를 읽기 쉽게 엮어 <충남여성이야기>라는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2월 네 번째 <충남여성이야기>가 발간됐다. '여성공동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책은 매사에 적극적인 충남 여성의 삶을 조명하고
이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부여 토종씨앗
지킴이들

서산 태안
갯벌지킴이들

충남여성의 삶을 그려낸 이야기

목업예정

〈충남여성이야기-여성의 삶이 곧 역사라오〉는 충남여성 인물사 〈충남여성이야기 1~3〉까지 세 권을 시리즈로 엮어 발간하였다. 〈충남여성이야기 1〉은 현재 생존해 있는 충남 여성 6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세모시 기능 전승자 권예식, 지능공예 명인 최영준, 춘포짜기 명인 백순기, 강경젓갈의 원조 심은섭, 석탄광산 노동자 전수·주동분의 이야기를 담았다. 〈충남여성이야기 2〉는 충남 고유의 판소리 중고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았다. 서산의 심화영과 승무를 전수받은 손녀 이애리, 판소리를 전수받은 이은우 등의 삶을 다루었다. 〈충남여성이야기 3〉은 충남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의 궤적을 추적해보고 유관순 열사 뿐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 운동가의 이야기도 함께 담았다.

〈충남여성이야기-여성공동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공동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충남 여성들을 조명했다. 서산태안 갯벌지킴이들, 당진 백석올미마을, 부여 토종씨앗지킴이들, 홍성 이주민센터 ‘이주여성통번역활동가’의 이야기를 담고, 연대와 나눔의 공동체, 충남 여성의 주체성을 다시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4곳의 충남 여성의 삶을 읽어 내려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충남 여성공동체를 만나보자.

지역 환경을 지키는 여성 파수꾼들! 서산태안 갯벌지킴이들

어린이들 손잡고 바닷가로 산으로 생태체험 현장을 다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강사로 나섰다. 깨끗한 환경,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작은 관심과 참여가 그를 현장활동가로 이끌었다. 시민 탐사단을 꾸려 가로림만에 나타난 점박이물범의 먹이활동사진촬영에 최초로 성공했다. 2017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으로 서산갯벌과 지역환경지킴이로 활동 중인 권경숙 국장, 세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환경운동가로 변신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책속에서

- P.14** 임신한 여자가 결석 한 번 안 하니까 수료식에서 표창장을 주더라고요. 뱃속 아이와 같이 받는 기분이었어요.
- P.21** 사실 여성들이 환경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데 적합해요. 기획력, 꾸준함, 성실함, 실천력, 연대의식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 P.24** 서산 풀뿌리 여성연대 '옴니버스'는 4개의 단체가 결합한 프로젝트 팀.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풀뿌리성장소모임 프로젝트에 응모하면서 서산 지역 여성들이 연대했다.

부녀회에서 마을 기업으로, 할매들의 도전과 성취 당진 백석올미마을

평균나이 73세. 논밭 일을 마치면 시골집을 지키거나 마을 노인정에서 시간을 보낼 법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영농법인을 세우고 공장에 취직해 한과를 만들어 팔았다. 출퇴근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나이 들어 잃었던 자신감도 되찾았다. 이제는 남은여생을 함께 지낼 자신들의 공동체를 꿈꾸는 '당진백석올미조합 할머니들. 10여 년 전 새마을부녀회를 이끌며 조합을 설립하고 눈부신 성장을 거둔 김금순 대표에게 그 비결을 물어보았다.

책주에서

P.38 할머니들의 아름다운 반란 중심에 김금순(71) 대표가 있다. 남편 고향에 정착해 우연히 마을 부녀회장을 맡으면서 그의 인생이 변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을도, 시골 할머니들의 삶도 바꿨다.

P.42 절대로 어느 누가 혼자 했다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들이 마음먹고 하면 남자들보다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전 그때 알았어요.

P.55 혼자 사시는 분들은 출근하는 직장이 있어 외롭지 않다고 해요. 자존감이 높아졌죠. 나이 들수록 주변에 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한 일인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이게 조합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성농민의 손으로 지키는 농업권이 삶의 주권! 부여 토종씨앗지킴이들

그 옛날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 내려온,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체질에 맞게 변화를 거치며 전해지는 소중한 씨앗들이 있다. 지금도 할머니들은 수십 년 동안 채종, 육종, 파종이라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순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머니들의 씨앗과 농사에는 가족의 건강한 먹을거리로 생명력을 책임지고 유지하는 삶의 주권이 깃들어 있다.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이 그저 여자들의 삶이 그런 것이려니 하는 사이에 이마에는 주름이 파이고 허리는 굽고, 손마디는 굵어졌지만 할머니들은 전문농업인으로서 '토종씨앗'을 지켜왔다. 이제 그 할머니들의 권리를 이어받아 40~50대의 젊은 여성농부 활동가들이 토종씨앗지킴이로 나섰다.



책속에서

P.65 그에게 토종씨앗지킴이 활동은 여성들의 주권을 살려 공동체를 꾸리고, 나누는 삶 자체이기에 보람이자 즐거움이다.

P.70 토종농산물은 개량종에 비해 볼품 없고, 농사짓기도 어렵고, 수량도 적고,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도 없지만 한번 먹어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는 것 또한 그가 토종농사에 푹 빠진 이유다.

P.78 이 밭은 오로지 토종씨앗을 늘리기 위해 작물이 심어지고 거두어진다. 수확하여 농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수확한 씨앗을 나누는 게 목적이다.

이주민들의 해결사이자 연결을 돕는 이주여성개척자들! 홍성이주민센터 '이주여성통번역활동가'

따뜻한 가족과 조국의 품을 떠나 낯선 타국으로 터전을 옮긴 용감한 여성들이 있다. 일자리를 찾아서, 반려자를 찾아서 주체적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고자 긴 여정에 들어선 여성들. 하지만 타국에서 정착하여 살기위한 이주여성으로서의 삶은 만만치 않다.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생활에 정착한 이주여성들이 모였다. 새로운 이주민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돕고자 스스로 봉사의 길에 나섰다. '이주여성통번역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홍성이주민센터 이주여성통번역활동가들을 만나 그들의 활동상을 들어봤다.



책속에서

- P.92** 자신이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과 고려인들의 빠른 정착을 돕고자 하는 이타심이 이주민들을 통번역활동가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다.
- P.102** 통역을 하다 보면 심한 경우 욕설을 하며 통역가 탓을 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그만해야지' 생각하다가도 누군가에 통역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 느새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장례지씨.

- P.108** 이주여성통번역활동가들은 지역 곳곳에서 이주민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의 현장에서 단순히 언어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가족상담자나 노동상담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풀뿌리자치학교

풀뿌리자치학교

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사업

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사업

충남 성평등 도시 만들기

충남 성평등 도시 만들기

수사 현장에서 필요한 성인지 교육

지난 5월 25일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남경찰청 수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경찰의 직무역량으로서의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적 수사의 이해', '수사 사례를 통하여 성인지적 관점 실천하기' 등 총 6시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강의 포커스 수사 사례에 성인지적 관점 적용하기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소장



수사 임무 VS 피해자 보호 임무

범죄 수사 및 성인지 수사를 연구하는 외국의 많은 학자가 성폭력 사건에서 수사 임무와 보호 임무 사이에 '양팔저울'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한다. 범죄 수사를 정확하게 하려는 의욕이 앞서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다 보면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사 초기에 확보한 정보가 적을 경우

수사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범죄 관련 정보를 확보하면 피해자의 신고나 진술 등에 대해 신빙성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초기에 확보한 정보가 적거나 거의 없다면 수사관은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피해자가 일부라도 원인을 제공했는지 살피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또 물리적 상해 발생과 피해자의 저항 여부, 저항의 강도 등에 대해서도 집중한다. 심지어는 피해자가 합의하에 발생한 성관계를 폭력을 수반한 폭력으로 왜곡해 신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다.

수사기관과 수사관의 역할은?

수사기관은 수사관이 수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인권 및 인신 보호를 위해 정책이나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한다. 수사관은 인권 감수성의 하나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을 버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중간 지점에서 실체를 밝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수사적 조사나 형사처벌 과정에서 냉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R E V I E W



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박승호 경위 성 관련 범죄를 다루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젠더 갈등과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최근 자주 접하면서 남녀 갈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느끼던 차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강의를 통해 양성평등에 대해 좀더 자세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찰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소 딱딱한 자세로 업무에 임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성평등과 성관련 범죄를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았고, 무엇보다도 무거운 주제를 좀 더 편안하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더 와닿았던 강의였습니다.

학교 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

충남여성가족연구원과 충남교육청은 학교 성평등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7년도부터 MOU를 맺고 해마다 교육 과정을 운영해왔다. 올해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간 총 30시간에 걸쳐 2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젠더의 이해, 섹슈얼리티와 다양성, 미디어 비평, 학교 성평등 교육 실습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인권과 성인지 관점으로 갈등 다루기

황금명륜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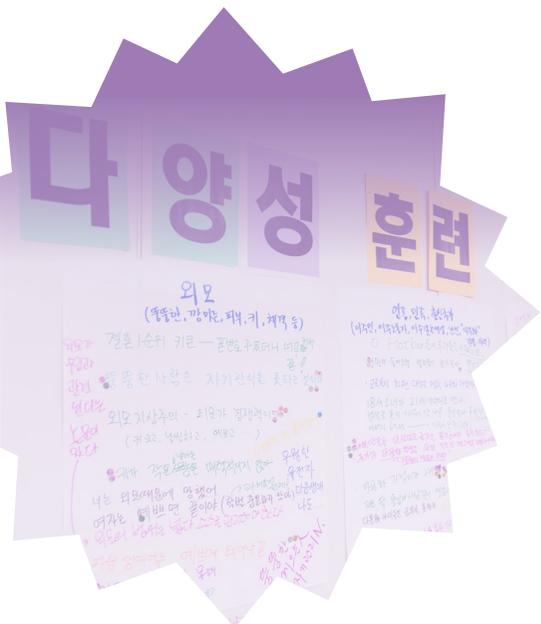


노르웨이의 사례

노르웨이는 NATO 최초로 여성징병제를 도입했으며 내무반에서도 혼숙을 할 수 있다. 이후 고든달 캘리포니아대 교수 외 여러 학자가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입소 수 남성과 여선간 젠더 의식에 대한 격차가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달 교수는 혼성 그룹 구성원에게 동일한 지위한 목적을 부여한다면 성의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즉 지위가 동등하고 공동의 목표가 있으며 협력하는 상황이라면 구성원 간의 편견을 충분히 깰 수 있다는 것이다.

편견 해소, 접촉 가설에서 해답을 찾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편견. 그러나 지구촌 한 편에서는 집단 단 간에 적대감을 줄이고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조건에 관해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엘리엇 에론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저서 '사회 심리학'에 기술한 '접촉 가설'이라는 이론이다. 접촉 가설은 인종이나 민족 또는 그 밖에 다양한 상호대립적인 집단 간에 편견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접촉'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단순히 접촉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접촉이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성, 공동의 목표, 동등한 지위, 상호 접촉, 다양한 접촉, 평등에 관한 사회적 규범까지 이 여섯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교육 후 기억에 남는 세 가지 키워드?



1 백래시, 프레임 깨기, 폭력 예방

백래시라는 내용이 생소했는데 강의가 끝난 이후 좀 더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사례를 찾아 공부하고 싶습니다. 또 프레임 깨기를 위해서 나부터 점검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 실제 생활에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고 이를 공유하며 제도 마련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할 것입니다.



2 프레임의 전환, 기울어진 운동장, 젠더 갈등

프레임의 전환을 위해서 다양한 사례를 찾아 이해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새로운 이슈에 대해 늘 생각하며 비판 의식을 가지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비판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토론의 기회를 많이 만들 것입니다. 젠더 갈등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관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전환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3 인권, 젠더, 권력의 수레바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작은 소리에든 귀 기울이고 성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불평등한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어 하나하나 세심하게 생각하고 사용하며 상대방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젠더라는 용어를 잘 이해하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사회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권력의 수레바퀴라는 의미를 통해 역지사지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나도 언젠는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늘 넓은 시야로 상황을 바라볼 것입니다.

연결하다

- 00 23주년 기념세미나
- 00 유관순 학술연구회
- 00 젠더포럼
- 00 홈커밍데이_우크라이나 고려인 이주 현실과 지원정책
- 00 연구 플러스_충남 고려인 주민 이주현실과 지원정책
- 00 원장님 발간사 및 지역 기관장 8명 축하 메시지
- 00 기억에 남는 정책 연구

Connect

PART 3

Connect

23주년 기념세미나

23주년 기념세미나

23주년 기념세미나

23주년 기념세미나

유관순 학술연구회

유관순 학술연구회

유관순 학술연구회

유관순 학술연구회

홈커밍 데이

홈커밍 데이

홈커밍 데이

홈커밍 데이

연구플러스

연구플러스

연구플러스

연구플러스

원장님 발간사

원장님 발간사

원장님 발간사

원장님 발간사

충남인
여성인